◇90년대 전반기 소설 어떻게 볼 것인가

정신의 가열성이 남긴 흔적… 일탈욕망의 다기성

회상의 고통과 불확실한 미래 걸머질 90년대 소설문학

독서를 일과성 오락으로 전락시킨 글쓰기

한 원 균
〈문학평론가·국문과 박사과정〉

들어 가는 글

지는 낙엽을 바라보면 문득 방향을 물을 수 없는 헤어짐을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이별은 인연의 종말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향한 띠남이다. 이제까지 주어졌던 모든 억압과 부자유의 굴레로 부터 자신을 벗어버리는 길 떠남, 그 길 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익명적 존재되기의 온밀한 즐거움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여행의 즐거움은 이런 것이 아닌가.

오늘날 많은 소설들은 일탈을 향한 욕망의 다기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여행을 하면서 자신과는 다른 삶의 조건에 대하여 이해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떠나서 길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존재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정신의 방황으로 그려지는 형국, 90년대 소설의 측도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삶의 외연적 확장과 문제의 진원지로 향하는 정신의 치열성이 어디로 '회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때론 참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무엇이 소설이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우리시대 소설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자. 정신의 가열성이 남긴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의심하면서.

1. 회상하기의 의미와 고통

김형경의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와 공지영의 '고등어'는 80년대 운동권의 좌절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실변화와 역사적 전망에 대한 낭만적 열정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20대가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은 30대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현재의 삶은 보상하고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기의 힘겨움을 보여 주는 것에서 80년대적인 의식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 흔히 삶을 휴일담으로 밖에 말할 수 없는 쓸쓸함에 이들은 주목하고 있다.

그리므로 80년대를 이념의 시대라고 말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이념이 아니라 이념적인 것, 자기의 열정을 소진시킨 대상을 향해 무한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 '자기 내면(內燃)에의 충동'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김형경의 작품에 등장하는 민화의 이론적 경직성과 은해의 감상적 삶의 태도, '고등어'에 등장하는 은림의 피폐함은 모두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주의 운동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신을 인식하는 한가지 방법이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혹은 중심에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 작품의 중심은 그녀들의 불행에 있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는 '살아 남은 자들'의 고통에 있을 것이다.

글쓰기에 불가피하게 주어진 이데올로기성에 대하여 작가들은 얼마나 뜨겁게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것이다.

김형경과 공지영이 보여준 후일담은 파도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언제까지 지난 일을 만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시도가 우리 문학사의 특수한 환경, 즉 한 시대를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작가들에게 제기된다는 사실을 뜻 해,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회상이 고통스러운 만큼 새로운 미래를 예견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2. 역사 소재주의의 재능과 한계

문화적인 의미에서 탄린족주의화란 가능할까. 세계화와 국제화라는 명분이 자체 내 모순에 대한 최석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문화적인 보더니티'라고 불리는 여러가지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고전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루는 글쓰기이다.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이 그중의 하나이다. 자국의 특수한 문화 논리가 상품가치를 갖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향유될 수 있음지에 대한 의문이 이작품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든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살려서 확대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논리와 문화를 상품화하지 않고서는 전면적인 국제화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인화, 'UR시대의 문화논리')라는 논리와 그의 작품 '영원한 제국'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영원한 제국'은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패러디화한 것인데, 이야기의 기본적인 발상과 전개는 서양적이면서 소재적인 차원에서만 한국적인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보편적인 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광고 물량주의가 아니라 작제내의 미학적 성취도라는 사실을 떻떻 고전 작품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과성 오락의 차원으로 문학을 이해하는 형태에 일조하는 글쓰기가 문화적 퇴행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망을 잦는 일이 소홀당하고 삶의 중심을 모색하는 방황이 깊시되는 현상의 이면에 잘못된 독서행위에 편승되는 작가들의 '新대중주수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독자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삶의 정향점이 사라진 시대의 글쓰기란 무엇인가. 믿었던 가치는 의심되고 거짓이라고 생각해 오던 삶 속에서 위로받는 자신을 목격하는 일이란 진지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3. 가벼운 재즈풍의 환멸적인 사랑법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 과거를 포함하여 자신이 성장하고 생활했던 모든 물리적인 환경은 모두 거짓으로 보이는 세계, 그리하여 언제나 돌아가야 할 세계는 먼 이국의 땅이 되고 돌이켜 생각해 봐야 늘 환멸과 좌절과 고통만이 도사린 현실을 외면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곳, 이것이 하일지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이다. 사춘기 시절 사랑했던 소녀를 형에게 '빼앗겨 버린' 주인공에게 이 땅 위에서의 삶이란 무의미한 것이었다. 외국 생활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난 뒤여서, 환영 속에서만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심리 속에 고착된 여인(자신의 형수가 된)을 '지타'라는 환상의 음덕으로 재생시키기가 결국 제주도에서 만난 한 여자의 육체를 탐닉하게 된다. 자기 욕망을 욕망하는 위험한 변주는 그 여자의 불행마저도 수용해야 하는 환멸(여자 아들의 죽음과 여자의 정신이상)을 가져오면서 주인공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주제가 상실된 자리에서 글쓰기(이 작품은 2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지속적으로 먼 곳을 꿈꾸는 행위가 일탈적인 방황을 꿈꾸지만 그것이 중심으로부터 파생된, 중심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일단이 놓이는 것이다.

하일지에게 삶은 환멸적이어서 언제나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 강하다면 장정일에게 현실은 위압적이지 않다. 현실은 본래 중심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 다성악적 울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이끈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너희가 재즈를 믿는냐'에서 나타나고 있다. 혼합된 연상, 영화와 현실의 배합, 문법적 통사질서의 파괴, 서사적 필연성에서의 벗어남 등이 이 소설을 재즈풍의 가벼움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자기 내부에 갇혀버린(신정일, '수정궁에 갇힌 시시포스') 의식의 유폐성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란 고독한 마스타베이션 외에 무엇이 더 있을까. 이 또한 외로움을 견디려는 낭만적 화법에서 비롯된 환멸적인 글쓰기가 아닌가.

4. 온밀한 유혹인가, 혹은 잘못된 비판인가

성을 통한 욕력적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 성에 대한 갈추어진 폭력성 혹은 붉은한 욕망덩을 재생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필요하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성적인 금기를 설정하는 일이 지배적인 장치가 된다는 인식은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의 모순구조에서 비롯된 억압적 현상을 비판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성적인 담론은 단순한 유희 혹은 유혹이 될 수 있다. 조성기의 전작 장편 '욕망의 오각도'는 성적 담론이 상품화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 폭력화 되고 지배가 굳힘하는 형태로 문화되는 지점에서 현실의 욕망구조가 일파나 성적인 매개를 놓해서 읽혀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비판에 대한 미달 형태로서 조성기는 의미를 지닌다. 그가 그리고자 하는 세계의 폭력적 현상을 그 역시 즐기고 있다는 혐의(?) 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신용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는 한번쯤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았음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고백이란 반성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후회가 과거를 폐기하는 것이라면 반성은 과거를 지양하는 것이다. 고백이란 반성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란 무엇인가. 부랑생활을 했던 자신이 과거를 이야기한 것이 고백의 전부라면 일상적인 의미에서 지기 이야기 하기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뿐만아니라 왜 고백하는 대목마다 성적인 이야기가 빠져지지 않아야 했을까. "생의 눈발성과 불가해성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내 돌연변이의 전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라는 작가의 말에서 강추어진 전라적 욕망을 읽는 일은 필요하다. 글쓰기가 작가의 어떤 정신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삶의 어떤 부분을 복원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그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한 글쓰기는 단순한 상품 만들기와 다를 것이 없기때문이다.

나오는 글

무엇이 작가로 하여금 쓰게 만드는가.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운명 때문인가. 작가는 누구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제는 자각적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이야기를 앞이서 들어줘야 하는 수동적인 글읽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욕망, 특히 산업사회에서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화두처럼 간직할 필요가 있다. 낯선 곳을 떠도는 여행과 같은 글쓰기가 수사학적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현상이 우리시대의 소설적 대안일 수 있는가.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의 세계, 그 낯선 땅에서 작가만이 느껴진 그 환상적인(사실은 환멸적인) 기억들이 왜 현실적인 필연성을 지니는지 물어야 한다. 삶이 다양화되면서 하나의 중심적인 담론으로는 변화된 삶의 지층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현실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8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시대의 소설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회귀'가 문제의 일단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 환경과 조우하고 부분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대한 소설적 대안의 부재를 묵묵하게 되는 현상 등이 여전히 비판적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글쓰기에 불가피하게 주어진 이데올로기성(옴베르토 에코, '글쓰기의 유혹')에 대하여 작가들은 얼마나 즐겁게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앞으로 좀더 계속될 것이다.

공연안내

'95 희망의 노래'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펼쳐왔던 '희망새'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하고있는 '노래이야기'가 한무대에 선다.

그중 단원이 모두 출소한 이후 처음 공연을 갖는 '희망새'의 경우는 이 자리가 재기의 무대가 될 것이다.

청년문예 연구소가 주최하고 기획하는 이 공연에서는 두 단체 이외에도 '조국과 청춘', '안치환' 등 많은 노래패와 가수가 우정출연 하여 젊은 문예일꾼들의 문화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날짜:12월 22일(토)
시간:오후 3, 6시
장소:중앙대학교 루이스홀
문의:336-7869

극단 연우무대 'cafe 소공화국'

우리사회와 삶의 문제에 매달려 왔던 극단 연우무대가 오늘 우리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는 창작극 'cafe 소공화국'을 선보인다.

위기와 고립의 공간에서 인간의 행동 양태, 논이와 축제를 연극의 구조 속에 용해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직설적 증자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등 제기지 모티브를 이 연극은 보여주고 있다.

이 세가지의 조화가 모든 출연진들의 탈구에 의하여 새로운 무대언어인 신체어로 표현될 것이다.

기간: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일간
시간:평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주말 오후3시, 6시(월요일 공연없음) 문의:744-7090

극단 푸른 소극장 '냄새나는 여자'

극단 푸른 소극장에서는 닌 사이면의 원작 '냄새나는 여자'를 공연한다.

잡지사를 운영하는 두 남자, 그 옆집에 이사온 금발의 미녀, 그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세 사람의 사랑이야기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사랑관 그리고 인생관을 함께 그린 완전한 코메디로서 연말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연극이 될 것이다.

기간:12월 2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시간:오후 4시30분, 7시30분 문의:747-6742~3

창작 뮤지컬 '별님들은…'

별자리 청신극회에서는 창작 뮤지컬 '별님들은 세상에 현사랑씩 의미를 두어 사랑한다는데'를 무대에 올린다.

이 뮤지컬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죄를 극복한 생명력의 확보 등 신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죄와 업의 문제를 다루었다.

기존의 뮤지컬과는 다른 의도로 제작된 '별님들은…'는 우리의 대사, 몸짓, 정서를 표현의 중점에 세웠으며, 원작을 수입만 하던 우리의 연극 현실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1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5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간:화·수는 7시30분, 목·금·토·일은 4시30분, 7시30분

제6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88년 첫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6번째를 맞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린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대중가수의 참여를 넓혀 사회각계 각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12.12 군사반란자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한 시민친목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 공연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룬 양심수가 모두 모여 과거의 고난을 되새겨 보고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양심수들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장소: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날짜: 12월 10일 토요일 오후6시
입장료: 8천원

ESSES

BILTMORE

"신세대 행동파에게 징크스란 없다!"

빌트모아가 제안하는 면접전야 6대 징크스깨기

아직도 어떤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까?
신세대 행동파는 근거없는 징크스때문에 고민하기 보다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있게 면접을 준비합니다.
빌트모아가 제안하는 임시시험전 6대 징크스 깨기!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접을 고대합니다.